

경제통상 핫이슈

美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FAQ

- **Q1. 지난 20일, 美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IEPA(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찬성6, 반대3)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근거는 무엇입니까?**
 - 美 대법원판결의 핵심 근거는 ▲행정부의 과도한 법리 해석, ▲헌법상 의회의 과세권 재확인, ▲ 권한 위임의 명확성 결여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IEPA에 명시된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문구만으로는 대통령에게 특정 국가나 품목을 대상으로 무기한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과세권(Power of Taxing)은 美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른 명백한 의회의 권한이므로 의회의 적법한 위임 없이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의회가 관세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할 때는 명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어왔으나, IEPA에는 관세에 대한 위임이 명시된 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Q2. 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 현황 및 향후 전망은 어떠합니까?**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일 상호관세 종료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동시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하여 신규 관세를 공식화했습니다.
 - 다음 날 21일에는 법정 최대 한도인 15%로 세율을 상향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 이번 관세 조치는 美 동부 시간 기준 2월 24일 0시 1분부터 150일 동안 한시적으로 발효되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7월 24일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또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 조치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Q3. 이번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는 무효화 되었으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에 중복되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누적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향후 받게 될 모든 품목을 신규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이중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받는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5%)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이번 신규 조치와 무관하게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운 일부 농축산물, 핵심 광물, 에너지, 의약품, 항공우주 부품 등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관세 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Q4.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종료 행정명령에 따른 효력이 실무단계에서 곧바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美 CBP(세관국경보호국)에서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도 CBP 통관 절차와 시스템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아 판결 효력의 발생 시점과 실무 지침 적용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2일 CBP는 CSMS(화물시스템 메시지 서비스, #67834313)를 통해 시스템 업데이트 및 관세 부과 중단 지침을 미국 전역의 세관 항만과 CBP 현장 직원들에게 전달했으며, 동부 시간 기준 24일 0시를 기해 통관 전산망 시스템(ACE) 업데이트에 따라 IEEPA 관세 코드가 비활성화되고 무역법 122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유예 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美 동부 시간 기준 24일 0시 1분 이전 출발지 항구에서 선적되어 운송 중이어야 하며, 2월 28일 0시 1분 이전에 미국에 입항하여 및 수입 통관 절차를 마쳐야 신규 관세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Q5. 이번 무효 판결에 따라 관세 환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환급 규모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대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위법으로 판단했고,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관세 환급과 같은 구체적인 구제 조치는 원칙적으로 1심 관할 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후속 절차에서 결정하게 되지만, 행정부가 이를 닦거나 지연시킬 여지도 있어 실제 환급 범위와 시기는 향후 판결과 행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환급 신청과 권리 보호를 위해 과거 IEEPA 관세 납부 내역, 통관번호, 송장·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美 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환급 실무대응 점검> [원문보기](#)

● Q6. 이번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한-미 양국 간 무역합의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한국 국회 여야가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IEEPA 상호관세가 사라진 대신 122·232·301조 등 다양한 관세 수단이 조합되는 구조로 바뀌면서, 122조 임시 관세 종료 이후에도 301조 추가 관세 부과, 232조 적용 확대 등 형태로 새로운 압박이 가해질 위험이 상존해 향후 한·미 무역합의의 실질 효과와 대미 수출 환경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델러스 지부에서는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설문을 통해 남겨주시면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바로가기](#)

뉴스 큐레이션

경제·통상 뉴스

美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 1.4%로 둔화...정부 섀다운 여파

- 20일 美 상무부는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4%(속보치, 전기 대비 연율)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3분기 4.4% 성장에서 급격히 둔화된 수치로 美 의회 예산국(CBO)은 연방정부 섀다운이 4분기 GDP 성장률을 약 1.5%p 낮춘 것으로 추정

※ 원문 링크 : [FOX\(2/20\), US economy grew slower than expected in fourth quarter](#)

美 1월 산업생산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제조업 회복세

- 18일 美 연방준비제도(Fed)가 발표한 1월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고, 특히 제조업은 0.6% 늘어 작년 2월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전문가들은 AI 자동화가 이끄는 고용 없는 성장에 주목

※ 원문 링크 : [Reuters\(2/18\), US manufacturing output posts biggest gain in 11 months in January](#)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24일부터 IEEPA 관세 징수 중단

- 23일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화물시스템메시지서비스(CSMS)를 통해 화주들에게 발송한 공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행정명령에 연동된 모든 관세 코드를 24일 0시부터 비활성화한다고 안내

※ 원문 링크 : [Reuters\(2/22\), US to stop collecting tariffs deemed illegal by Supreme Court on Tuesday](#)

美 트럼프,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 강행의지 밝혀

- 24일 美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의 첫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외국이 내는 관세 수입이 소득세를 대체해 미국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

※ 원문 링크 : [Fortune\(2/25\), Trump dodges mention of tariff refunds in State of the Union speech](#)

美 트럼프, 오하이오 가스발전소 등 일본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 17일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투자 협정에 따른 1차 대미 투자 패키지로 오하이오 가스복합발전소(약 330억 달러)와 텍사스 심해 원유·가스 수출 터미널, 조지아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공장 등 총 3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발표

※ 원문 링크 : [Reuters\(2/23\), Trump says Japan to invest in energy, industrial projects in Ohio, Texas and Georgia](#)

지역·산업 뉴스

포스코인터내셔널, 내년 미국서 희토류 첫 생산한다

-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9월 美 광물 업체 리엘리먼트테크놀로지스와 체결한 MOU에 따라 합작법인을 통해 희토류 생산 단지를 짓고 2027년부터 희토류 분리·정제는 물론 및 영구자석까지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

※ 원문 링크 : [한국경제TV\(2/12\)](#)

美 텍사스, 2030년 세계 데이터센터 중심지로 부상 전망

-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의 북미 데이터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주는 현재 6.5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며 2030년까지 버지니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원문 링크 : [Business Insider\(2/19\)](#), [This US state could be the new data center capital of the world by 2030](#)

애플, 휴스턴에서 맥미니 생산한다

- 애플은 휴스턴 북부 폭스콘 공장을 확장해 연내 약 22만ft² 규모의 맥미니(데스크탑 PC) 전용 제조시설과 교육 센터를 통합한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향후 4년간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임

※ 원문 링크 : [The Wall Street Journal\(2/23\)](#), [Apple Plans to Manufacture Mac Mini in Houston](#)

'상호관세 돌려달라' 소송 봇물...로레알·다이슨도 합류

-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美 대법원 판결 이후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미 1,400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전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원문 링크 : [Reuters\(2/24\)](#), [L'Oreal, Dyson, Bausch+ Lomb become the latest to sue for Trump tariff refunds](#)

텍사스주 법무장관, 중국 및 공산당 연계 5개 기업 상대로 소송 제기

- 20일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중국 공산당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TP-Link(공유기), 안주로보틱스(드론), 로렉스(보안카메라), 테무·쉬인(쇼핑) 등 5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음

※ 원문 링크 : [Texas Attorney General Office press release\(2/20\)](#)

보고서 돌아보기

美 IEEPA 관세 위법 판결 및 후속 관세조치 동향

* 한국무역협회, <美 IEEPA 관세 위법 판결 및 후속 관세조치 동향> (2026.2.23) 보고서 일부 요약, [원문보기](#)

- 20일 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징수를 중단하는 한편,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는 입장 강조
 -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에 근거한 추가 관세 조치가 IEEPA 근거 상호 관세의 대체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

<IEEPA 외 관세 부과 법적 권한>

관세부과 근거	내용	사전조사 필요여부	부과기간 상한	관세율 상한
①무역법 122조	심각한 대규모 무역적자	X	150일 (의회 승인 시 연장 가능)	15%
②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관행	○ (USTR 조사)	4년 (이해관계자 요청 시 연장 가능)	X
③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 (상무부 조사)	X	X
④관세법 338조	외국의 차별적 행위	X	X	50%

- (①무역법 122조) 트럼프 행정부는 10%의 추가 관세 포고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15%로 상향
 - 동 조치는 사전 조사 절차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즉시 발동 가능하며, 의회가 법률로 연장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정 기한(15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무역법 122조는 원칙적으로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적용을 요구해, 상호관세와 같이 국가별로 차등 부과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
- (②무역법 301조) USTR은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신규 조사에 착수할 계획
 - 301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보복성 대응 조치로서, USTR이 피해 규모·협상 목표 등을 고려해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및 세율을 설계할 재량이 큼
 -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조사 분야 중 하나로 언급했으며,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한국도 포함될 수 있음
- (③무역확장법 232조) 의약품·로봇 등 조사 중인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발표, 반도체 등 기존 적용 대상 품목의 관세율 인상 및 품목 확대 가능성
 - 트럼프 2기 들어 의약품·로봇·드론 등 232조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아직 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7개 품목이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관세조치가 곧 현실화될 가능성
 - 반도체 등 232조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인 품목도 대통령 포고문·부속서 조정만으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대상 품목 확대, 관세율 인상 등 조정 가능

뉴스라인 스페셜

〈전문가 칼럼〉 미국인들은 왜 구독에 빠졌을까?

우리 집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면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꽤 된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은 기본이고, 정수기 필터 구독에 유튜브 프리미엄, 심지어 비타민 구독까지. 언젠가부터 "이번 달에 뭘 샀지?"보다 "이번 달에 뭘 구독하고 있지?"를 먼저 확인하게 됐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의 위력을 실감한다. 면도기, 비타민, 커피, 꽃, 와인, 아이 장난감까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구독 모델이 붙어 있다. 한국에서도 구독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미국만큼 일상 깊숙이 파고든 곳은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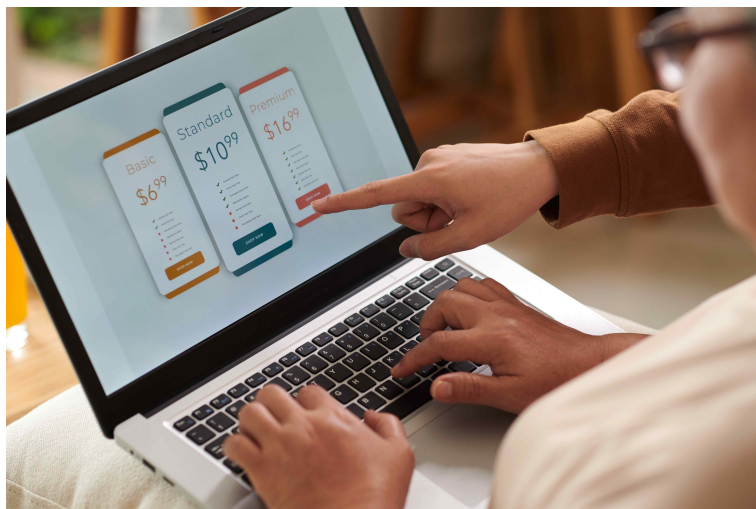
왜 미국 소비자들은 이렇게 구독에 열광할까? 단순히 "편해서"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다. 내가 보기에 핵심은 '결정 피로(Decision Fatigue)'다. 미국 마트에 가보면 안다. 샴푸만 해도 수십 가지, 시리얼은 한 통로 전체를 채운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고르기가 힘들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것 '선택의 역설(Paradox of Choice)'이라고 부른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만족도는 떨어지고, 결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구독 서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한 번만 고르면 된다. 그다음부터는 자동이다. 매번 "어떤 걸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특히 바쁜 미국인들에게 이 '고민의 아웃소싱'은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단향 교수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Data Science,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구독이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성'이다. 미국 가정의 살림을 들여다보면, 월 단위로 예산을 짜는 문화가 강하다. 모기지, 자동차 할부, 보험료 등의 고정 지출 항목이 많다. 여기에 구독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이번 달 식비로 얼마 쓸지 모르겠다"의 불확실성보다 "매달 50달러씩 나간다"의 확실함을 선호하는 것이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지출의 '분산(Variance)'을 줄이려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구독 모델을 고려할 때 뭘 알아야 할까?

첫째, 미국 소비자는 '해지의 자유'에 민감하다. 가입은 쉽게, 해지도 쉽게. 이게 기본이다. 해지 버튼 찾기 어렵게 숨겨두는 순간 SNS에서 불만이 터진다. 요즘은 FTC(연방거래위원회)에서 '클릭 한 번 해지' 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구독은 '관계'다. 한 번 구독하면 매달 그 브랜드와 접점이 생긴다. 이게 기회이기도 하고 리스크이기도 하다. 배송이 늦거나 품질이 들쭉날쭉하면 바로 이탈한다. 반대로 작은 감동—예를 들어 생일에 보내는 쿠폰 하나—이 장기 고객을 만든다.

셋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구독 모델의 진짜 장점은 고객 데이터가 쌓인다는 것이다. 언제 많이 쓰는지, 뭘 추가로 주문하는지, 언제 해지 직전까지 갔는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탈 예측 모델' 같은 걸 만들면, 떠나려는 고객을 미리 잡을 수 있다.

우리 집 명세서를 다시 보니, 취소한 구독도 꽤 있다. 왜 취소했는지 생각해보면 대부분 비슷하다. 기대만큼 가치를 못 느꼈거나, 깜빡 잊고 있다가 명세서 보고 "이거 아직 내고 있었어?" 하는 경우다. 구독 경제에서 성공하려면 결국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고객이 매달 돈 나가는 걸 보면서도 '아깝지 않다'고 느끼게 하려면 뭘 해야 할까?"

그 답을 찾는 기업이 미국 소비자의 신용카드 명세서에 오래 남을 것이다.

주요 경제지표

● 美 주요 경제지표 캘린더

발표 일자	경제지표	실제	전망	이전
2월 13일	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YoY)	2.4%	2.5%	2.7%
↳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전월(2.7%) 대비 둔화하며 8개월 만에 최저 수준 기록				
2월 20일	'25년 4분기 경제성장률(GDP, QoQ)	1.4%	2.8%	4.4%
↳ 4분기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정부지출 급감이 가장 큰 요인이며, 그 외 수출 감소 등 영향에 따라 전기 대비 급락				
2월 24일	2월 소비자신뢰지수(CB Consumer Confidence)	91.2	87.4	89
↳ 2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1월보다 소폭 개선되며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다소 완화				

출처 : Investing.com

● 주가 & 금리(미국)

- S&P 500은 6,900선 안팎의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하며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으며,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 현상을 벗어나 플러스 구간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

구분	02.24	02.10	2W(% ,bp)	01.27	1M(% ,bp)	25.12.31	YTD(% ,bp)
S&P500	6,890.1	6,941.8	-0.75	6,978.6	-1.27	6,845.5	+0.65
국채 2년	3.46	3.45	+0.70	3.57	-10.80	3.47	-0.80
국채 10년	4.03	4.15	-11.20	4.22	-19.00	4.15	-12.00

출처 : Investing.com

● 국제유가(최종가 기준, 단위 : \$/배럴)

-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공급 차질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OPEC+의 4월 증산 가능성 및 산유국 수출 확대 논의가 맞물리며 높은 가격대에서 변동성이 확대

구분	02.24	02.10	2W(%)	01.27	1M(%)	25.12.31	YTD(%)
Dubai	70.47	67.99	+3.65	62.89	+12.05	61.59	+14.42
Brent	70.77	68.80	+2.86	67.57	+4.74	60.85	+16.30
WTI	65.63	63.96	+2.61	62.39	+5.19	57.42	+14.30

출처 : 페트로넷

● 주요국 환율

-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달러는 2월 들어 전반적으로 다시 강세 전환 흐름

구분	02.24	02.10	2W(%)	01.27	1M(%)	25.12.31	YTD(%)
USD/KRW	1,441.4	1,456.6	-1.04	1,432.0	+0.66	1,440.6	+0.06
USD/JPY	155.9	154.4	+0.97	152.2	+2.42	156.7	-0.50
USD/CNH	6.874	6.913	-0.57	6.933	-0.86	6.976	-1.47
EUR/USD	1.177	1.190	-1.03	1.204	-2.23	1.175	+0.22
달러인덱스	97.84	96.80	+1.07	96.22	+1.68	98.32	-0.49

출처 : Investing.com, 한국은행

행사 알리미

2026 멕시코 과달라하라 식품 및 유통체인망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 전시회 개요 및 특징

- 개최기간 : 2026. 5. 19(화) ~ 5. 21(목), 3일간
- 개최장소 : 엑스포 과달라하라(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
- 주요특징
 - 1) 중남미 최대 규모 B2B 소매·유통·식품산업 박람회로, 멕시코 및 중남미 식음료·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
 - 2)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1:1 매칭을 제공해 효과적 상담 및 파트너 발굴 가능

한국관 참가개요	한국관 지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규모 : 10개사 - 한국관 면적 : 90m²(10개 부스 규모) - 부스신청단위 : 1개 부스(7~9m²) - 기업부담금 : 7,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해외 마케팅 및 홍보 - 한국관 현장 마케팅 - 부스 임차비 50% 이내, 부스 장치비 50% 이내 지원

※ 참가 자격, 참가 신청 등 세부 사항은 아래 배너 클릭



〈참가 신청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의 구독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구독 취소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K I T A
KITA Dallas Center

5700 Granite Pkwy, Suite 402, Plano, TX 75024

☎ 469-409-1004 ✉ newsline@kita.net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델러스 지부

* 본 뉴스레터의 내용은 한국무역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5 KITA Dallas Center. All rights reserved.